

# 한국 근대시에서 독일시 접촉과 수용

문 현 미\*

## 차 례

I. 서론	4. 독일시 수용의 발전기 (4단계: 1930-1939)
II. 독일시 접촉과 수용의 맹아기에서 쇠퇴기까지	5. 독일시 수용의 쇠퇴기 (5단계: 1941-1945)
1. 독일시 수용의 맹아기 (1단계: 1898-1909)	III. 결론
2. 독일시 수용의 출발기 (2단계: 1910-1919)	
3. 독일시 수용의 성장기 (3단계: 1920-1929)	

## I. 서론

한국에 번역을 통한 외국문학의 수용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으로 1800년대 말 무렵으로 보고 있다.<sup>1)</sup>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시대는 국

\* 천안대 국문과 교수

1)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8, pp. 152-54 참조. 김병철 교수에 의하면 1895년에 출간된 번역서로는 J.S. 게일 부처 역인 『턴로역정』과 역자 미상인 『유옥역전』 두 편이 있다고 한다. 기존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자가 한국에 수용된 최초의 서양 문학 번역서였는데, 1970년대 초반 서지학자인 안춘근씨의 장서에서 후자의 저서가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두 번역서

제화·세계화를 부르짖으며 21세기 인류국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질적 문화가 서로 충돌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 다문화시대에 외국문화의 수용과 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외국문화가 엄청난 규모로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외국문화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수용 혹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외국문화 수용 1세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국문화 수용은 상호 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아직도 멀어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1세기 동안 일방적으로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데에 급급하였을 뿐 우리문학을 외국에 소개하는 경우가 지극히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황현산은 “국권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양의 문물과 대면했고, 이어서 식민지 시대가 있었다.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은 우리의 것과 ‘다른 것’에 그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의 형식을 띠었다. 게다가 우리에게서 우리 글로 학문을 했던 경험이 많지 않았고, 국문학 전통은 일천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글로 쓴 문학 작품이 국경을 넘어간 적은 거의 없었다.”<sup>2)</sup>고 신랄하게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상호 문화 풍부화하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방적인 수용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문학을 외국에 소개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가적 차원에서 ‘문학의 해’를 지정하고 한국문학 세계화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한국문학 번역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문학번역 금고가 설치되었고, 유럽 국가와 미국에 한국문학번역센터를 설립하는 등 상호 문화적 차원에서 교류의 시대가 개막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왜 외국문학을 수용해 왔는가? 이 점에 대해 여러 각도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외국문학 번역자들이 대부분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해 외국문학을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번역의 목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 내지는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외국문학을 수용함

---

모두 1895년에 출간된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몇 월에 출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황현산, 「번역에 깔린 패배주의」, <출판저널> 통권 제193호, (1996. 6. 5), p. 8 참조.

으로써 자국문학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때 수용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과 같은 매체다양화시대에 문학 수용의 범주는 가히 무한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그 양상이 복합적이며 다양하다. 특히 활자매체시대에서 영상매체시대로 변모해 가는 지금의 문화 현장 하에서는 문학 전달 매체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작가와 독자의 만남은 직접적이고 상호 소통이 원활하다. 문학 현장은 생산과 수용이라는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달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활자매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학 전달 매체의 기능과 영향력이 지금의 시대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신문과 잡지는 문학 전달의 기수였고, 근대화를 가속화시키는 도구였으며, 민족 정신을 지도하는 횡불이라고 할 만큼 일제강점기 조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문학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막중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고는 문학 전달 매체인 신문과 잡지, 거기에 게재되는 독일문학 또는 독일시와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시기는 1898년부터 1945년까지로서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기간을 「한국 근대시에서 독일시 접촉과 수용」이라는 범주 속에서 살펴볼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즉, 한국 근대시가 시기적으로 1898년부터 1945년까지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근대시가 시기적으로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견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한다.<sup>3)</sup> 다만 논제가 「한국 근대시에서 독일시 접촉과 수용」이기 때문에 한국 근대시와 독일시의 직접적 접촉은 아

3) 김용직은 한국 근대시를 1910년대말부터 1930년대초에 제작, 발표된 작품을 가리키고 있고, 오세영은 18세기 사실시조에서 근대시가 비롯되었으며, 그 하한선을 1926년까지라고 보고 있다.

김윤식은 일반적으로 한국 근대시란 1910년 무렵에서 2차대전까지로 보고 있으며, 주승택은 한국 근대문학의 범위를 1885년부터 1945년까지로 잡고 있다. 이밖에 김재홍은 1919년부터 한국 현대문학이 전개된다고 본다.

김용직,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82, pp. 71-72.

오세영, 『20세기 한국시연구』, 새문사, 1998, pp. 9-29.

김윤식, 『우리문학의 안과 바깥』, 성문각, 1986, p. 172.

주승택, 『한국 근대문학의 성격 재고』 -단절된 문학사의 극복을 위하여-, <시와 시학> 창간 특대호, 1991 봄, pp. 109-126. 참조.

니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조선)과 독일의 접촉도 한국 근대시가 독일시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고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시기를 한국에 최초로 독일학교가 설립된 1898년 시점부터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1945년까지로 잡는다.

첫째, 1단계로서 1898년부터 1909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독일시 수용의 맹아기로서 한국에 독일학교가 설립된 시점부터 한일합방이전까지의 기간이 해당된다.

둘째, 2단계로서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이다. 이 단계는 독일시 수용의 출발기로서 일본이 한일합방을 빌미로 무단통치를 시작한 때였고, 문학사적으로는 <소년>지나 <태서문예신보>, <창조> 등의 잡지들이 발간된 시기였으므로 이런 잡지들을 통해 외국문학이 서서히 한국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셋째, 3단계로서 1920년부터 1929년까지인데 독일시 수용의 성장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1919년 삼일운동이 발발함으로써 그동안 일본이 평가절하 하였던 조선인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외양상으로는 문화통치를 표방한 시대였다. 따라서 각종 문학 잡지와 신문들이 창간되고 그 흐름 속에서 외국시들이 다량으로 수용된 중요한 시기이다.

넷째, 4단계로서 1930년부터 1939년까지이며 독일시 수용의 발전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일본이 민족말살통치를 시작한 시대여서 한국어 사용을 상당히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대보다 문학 잡지에 외국문학 작품이 훨씬 더 많이 수용되었다. 또한 독문학 전공자들이 본격적으로 번역 활동을 하였고, 20년대에 비해 독일시 번역이 급증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1935년을 기점으로 잡지 발간이 줄어들고, 외국시 번역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다섯째, 5단계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로 친일언론이 강압적으로 요구되었고, 한국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시기이다. 이때는 잡지의 종류가 엄청나게 감소하였으므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학사적으로도 암흑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한국 근대시의 독일시 수용의 쇠퇴기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출간되는 잡지라고 해야 거의 친일잡지 일색이고, 그나마 주요 잡지와 신문마저 폐간되었기 때문에 번역작품을 게재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며 한국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더욱이 힘든 시기였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광복 이후 다소 혼란기를 겪고 난 후부터 외국문학의 번역이나 한국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외적인 압제가 풀림으로써 자연스럽게 활로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접촉과 수용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다. 이 두 용어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한정지어 사용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접촉은 한국(한국 근대시)과 독일, 독일문학, 독일시인, 독일시의 접촉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독상호간 조약 체결이나 독일학교 설립, 또는 번역서인 역사서, 역사교과서, 일반문학서적, 문학용어사전 등에서 독일문학의 특징에 대한 간략한 소개, 독일시인과 독일시에 대한 언급, 한국 근대시와 신문·잡지에 번역, 발표된 독일문학, 독일시인, 독일시의 접촉을 가리키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수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번역을 통한 수용의 의미로만 국한시키고자 한다.

그동안 본고의 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의 외국문학자들이 비교적 심도있게 연구를 해왔고, 국문학자들도 외국문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문학적 차원에서 이유영, 김학동, 이재선이 한독문학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했으며,<sup>4)</sup> 김효중은 박용철의 하이네시 번역과 수용에 관해 연구를 하여 박사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sup>5)</sup> 필자 역시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문학의 하이네 수용이라는 테마로 연구를 하여 출간한 바가 있다.<sup>6)</sup> 그리고 한국의 독문학계에서도 독문학 수용에 관한 연구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관련 논문들을 묶어

4) 이유영·김학동·이재선 공저, 『한독문학비교연구 1-1920년대까지 독일문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삼영사, 1982.

이유영·김학동·이재선 공저, 『한독문학비교연구 2-1945년까지 근대독일문학의 수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0.

이유영, 『한독문학비교연구 3 -1945년까지 현대독일문학의 수용』, 서강대학교출판부, 1983.

5) 김효중, 『박용철의 하이네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12.

6) Hyun Mi Moon, 『Die Rezeption Heinrich Heines in Korea von 1910 bis 1945.』, Institut für Koreanische Kultur, Bonn, 1993.

서 출간하기도 했다.<sup>7)</sup>

그러나 한국문학을 주체로 한 관점에서 한국 근대시가 독일시를 언제, 어떻게 수용했고, 독일시와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되,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시기를 1898년부터 1945년까지로 한정짓기로 한다. 필자는 「하이네 문학의 생산적 수용」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생산적 수용 혹은 영향사적인 면에서의 연구는 일단 다음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현대시의 독일시 접촉과 수용이라든가 영향사적인 측면에서 독일시가 한국 근·현대시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한국근·현대시인과 독일시인의 비교 연구 등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II. 독일시 접촉과 수용의 맹아기에서 쇠퇴기까지

### 1. 독일시 수용의 맹아기 (1단계: 1898-1909)

한국의 근대시가 독일문학, 독일시인, 독일시를 언제, 어떻게 수용했고 접촉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근대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혹은 그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수용했는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 문제는 우리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근대시의 정체성이 정립될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의 특성은 전통문학의 단절과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겠지만 또한 외국문학과 의 상관성 속에서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당시 한국에 수용된 외국문학이 한국 근대문학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한국 근대문학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혼란을 겪은 격동기의 문학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통문학의 고수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다른

---

7) 차봉희 역음,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1권』,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2권』, 한신대학교출판부, 2002.

한편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외국문학과 문예사조가 한국에 이입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모방하는 가운데 부작용도 발생했고, 그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sup>8)</sup> 말하자면 유럽 문예사조의 특징이 여러 면에서 잘못 수용되어 한국식 문예사조가 탄생하게 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으며, 외국문학 번역 역시 주로 일역본에 대한 이중역, 삼중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것은 김병철의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점이 일본어 중역에서부터의 탈피인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韓國近代詩에 대한 考察은 우선 海外詩와의 相關關係를 통해 檢討될 필요가 있다. 본래 우리 近代文學은 그 全般의인 特性을 海外文學, 특히 英, 獨, 佛, 露 등 여러 나라의 文學에서 받은 衝擊과 함께 形成·展開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둔다.”<sup>9)</sup> 특히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에 유럽문학의 번역이 “모태적 역할”<sup>10)</sup>을 했다고 할 만큼 이들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외국, 일본과 외국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문학 활동의 주역들은 대개 일본 유학파들이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직접 문학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을 통해서 외국문학을 수용했다. 따라서 한국 근대문학의 외국문학 수용은 이중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sup>11)</sup> 그러므로 “우리의 근대문학은 서구문학과 영항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용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문학이란 고정매체를 통한 이식”<sup>12)</sup>이라고 하는 진단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 하여튼 한국 근대문학 형성에 관한 한, 외국문학 및 일본 근대문학과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 근대시에서 독일시 접촉과 수용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8) 김학동, 「韓國에 있어 프랑스의 自然主義」, 『韓國文學의 比較文學의 研究』, 일조각, 1982. p. 54 참조.

9) 김용직, 앞의 책, p. 73.

10) 이유영, 「독일 낭만주의가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 『한독문학비교연구 I-1920년 대까지 독일문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삼영사, 1976, p. 345.

11) 김학동, 위의 책, p. 57 참조. 박경수, 「일제강점기 부산·경남 지역 시인의 일어서 발걸음 및 재조명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3집, 2003. 4, pp. 91-92 참조.

12) 김학동, 위의 책, p. 56 참조. 조동일도 이와 동일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p. 92 참조.

우선 독일시 수용 맥락에는 한국과 독일의 접촉, 번역서에 독일문학, 독일시인, 독일시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이고, 독일 작품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이다. 물론 후반기에 이르러 독일 작품이 번역되기는 했으나 번역을 통한 독일시 수용은 1910년대가 끝날 무렵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독일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과 아주 우호적인 국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한국(조선)이 독일과 처음으로 접촉한 시기는 1870년 고종 7년으로 보고 있다. 1883년 조선은 독일과 한독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부터 15년 후 1898년 조선에 德語학교가 설립된다. 학교 설립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에서 서양식 학교 설립은 엄청난 변화이다. 조선이 독일 군사체제를 배우기 위해서 독일학교를 설립했다는 점은 독일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조선이 왜 하필이면 독일학교를 설립했는가이다. 이는 조선이 독일의 군법과 군제가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 일본과 독일 상호간 긴밀한 국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여튼 조선에서 독일을 德國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독일은 德이 있는 국가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생활면에 이르기까지 배울 것이 많은 나라로 국가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은 좋은 국가라는 이미지로서 이 땅에 인식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 <朝陽報> 제 6 호에 실린 독일인에 대한 언급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德意志의 人의 最重한 宗旨는 自由의 精神과 及 獨立不羈의 志操와 氣九의 剛強함과 決斷의 勇敢함이라 故로 其人이 朋友나 仇敵에게 皆信實의 道를 盡하며 又重意氣하며 廣結客하는 風이 有하고 天性이 慈悲하야...”<sup>13)</sup>

이처럼 조선 사람들은 독일과 독일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문학, 독일시인, 독일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3) 「泰西教育史」, 제3장 “中古歐洲情狀”, <朝陽報> 제6호. p. 8.



한국에서 서양과 서양문학에 대해 최초로 소개한 책은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일본 交詢社刊, 1895. 4. 25)이다. 이 책을 통해 서구적 관점에서의 시, 소설, 시학과 같은 문학 용어들이 한국에 도입되었던 것이다.<sup>14)</sup> 서양문학에 대한 소개서인 이 책이 발간된 지 약 4년만인 1899년에 역사서 『소학만국역사』(<한성월보> 제 6호, 1899.1.30)가 출간되었는데 이 책의 독일작가 소개편에 괴테와 쉴러의 이름이 나온다. 괴테와 쉴러, 두 시인은 독일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소개되고 있으며, 맨 처음 한국에 알려진 독일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엽 독일시인 괴테와 쉴러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은 했지만 정작 독일 문학 작품이 한국에 번역, 소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문헌 자료에 따르면<sup>15)</sup> 한국에 최초로 수용된 독일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1907년 쉴러의 『빌헬름 텔, Wilhelm Tell 1802년작, 희곡』을 중국사람 정철관이 소설체로 의역한 것을 한국사람 박은식이 다시 국한혼용체로 의역한 작품인 『政治小説 瑞士建國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원저자와 역자가 미상인 작품으로서 1906년 <朝陽報> 제2호(1906. 7. 10)에 실린 「비스마르크 淸話」이다. 이 책은 철혈재상이라고 불릴 만큼 강인한 인물이었다는 비스마르크에 대한 인물 소개글로서 단순히 사실 나열식의 전기가 아니라, 당시 프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형성된 비스마르크의 인격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많은 글이다. 물론 이 역서를 문학작품으로 평가하기에는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한국에 수용된 최초의 독일문학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좀 더 지배적이다. 차봉회는 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sup>16)</sup> 이유영은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sup>17)</sup> 필자도 후자와 같은 견해로

14) 김병철,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상)』, 을유문화사, 1980, p. 9 참조.

15) 본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서양문학 수용에 관한 자료는 모두 다음 저서들을 참조한 것임.

김병철,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上)』, 을유문화사, 1980.

\_\_\_\_\_,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下)』, 을유문화사, 1982.

\_\_\_\_\_,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8.

이충섭 엮음, 『한국의 독어독문학 연구 문헌 서지(단기 4278-4319; 1945-1986)』, 탑출판사, 1987. 7. 20.

\_\_\_\_\_, 『관계 번역문헌 정보, 1906-1990』, 한국문화사, 1990. 9. 20.

서 개화기 당시에는 역사류나 전기물이 모두 소설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sup>18)</sup> 이재선도 『한국개화기소설연구』에서 「비스마룩구 淸話」를 소설로 취급하고 있다.<sup>19)</sup> 이로써 한국에 처음으로 수용된 독일문학 작품은 「비스마룩구 淸話」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서에서 괴테와 셸러는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1907년 유승겸이 역술한 『중등민국사』에도 작가명으로서만 괴테와 셸러가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문학에 대한 소개 편에 독일에는 시인 괴테와 셸러가 있고 그들의 시는 고매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낭만주의가 괴테와 셸러, 칸트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고 설명한 부분도 있다. 이것은 독일 낭만주의와 독일시인 괴테와 셸러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문예사조 이입시 괴테와 셸러가 고전주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자로 소개됨으로써 문예사조상으로 엄연히 다른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혼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질풍노도 문학과 낭만주의 문학도 개념이 섞여서 사용되는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sup>20)</sup>

1907년 현채가 번역한 『동서양역사』의 문학에 대한 부분에서 독일시인 괴테와 셸러를 거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1908년 이채우 번역인 『19세기구주문명진화론』에서도 괴테와 셸러를 위대한 저술가로서 학문과 사상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해 육당 최남선은 잡지 <소년>을 발간한다. 육당은 <소년>지에 괴테와 셸러를 소개하면서 두 시인의 금언과 독일 속담을 함께 실고 있다. 이런 독일 속담과 독일시인의 금언이 활발하게 문학 활동을 한 육당의 창간호 <소년>에 실리게 됨으로써 당시 문학인이나 문학 애호가들에

- 
- 16) 차봉희, 「한국의 독문학 수용사적 개관에서 드러나는 수용 양상과 그 전망 -독일 '번역소설'을 중심으로 한 독문학의 한국 수용사적 개관」, <외국문학> 제 48호, 1996 가을. p. 37 참조.
- 17) 이유영, 「독일문학의 이입」, 『한독문학비교연구 I』, 삼영사, 1982. pp. 66-67 참조. 안상원, 「독일 시문학의 수용」,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I』,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p. 187 참조. 안상원도 「비스마룩구 淸話」를 한국에 최초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으로 보고 있음.
- 18)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p. 164 참조.
- 19)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2, pp. 78-79 참조.
- 20) 김학동, 『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82. p. 54 참조.

게 독일의 국민성과 정신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898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과 독일의 접촉, 한국과 독일 문학, 독일 시인과의 접촉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이 독일의 군사체제를 배우기 위해 독일학교 설립을 했기 때문에 독일은 처음부터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지닌 국가로서 인식되었다. 따라서 독일문학이나 독일시인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이 독일과 국가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상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독일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독일문화가 한국에 수용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한국 근대사가 독일시와 접촉할 수 있는 씨앗이 싹튼 단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당시 외국문학 번역의 절반 이상은 문학적 효용성이 많은 역사물이나 전기류, 정치소설 등이 차지했다.<sup>21)</sup> 이는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서 서구 열강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 특히 일본의 침략에 대한 국익과 국권의 보호 차원에서 전신자들이 주로 역사물이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전기류를 번역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주로 번역서인 역사교과서 내지는 역사서에서 외국문학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가운데 독일시인들의 이름을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독일 문학 내지 독일시인만을 단독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 나라의 문학과 시인도 함께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독일 문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독일 시인들, 주로 괴테와 쉴러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들을 최고의 작가, 독일문학의 대표 작가 혹은 시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독일의 접촉은 우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독일문학, 독일시인과의 접촉 역시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2. 독일시 수용의 출발기 (2단계: 1910-1919)

이 단계는 시기적으로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19년 <창조> 발간까지를 일

21)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p. 309 참조.

견는다. 1910년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비극적인 출발이었고, 그만큼 문학적으로도 큰 결실이 없는 단계이다. 일본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시작한 때였으므로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폐간하고, 겨우 종교잡지 정도만 허락하는 등 문학인들의 문학 활동을 제지하였다. 이 시기에 출간된 잡지는 총 45종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종교잡지였으니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22)</sup> 1911년 5월에는 그나마 <소년>지가 폐간됨으로써 문학인들에게는 어두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소위 ‘언어부재시대’ 속에서 문학 활동을 해야만 했던 문학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전문학지인 <청춘>(1914) 발간, 순수한 입장에서 외국문학을 번역, 소개했던 <태서문예신보>(1918), 순수문학지인 <창조>(1919)가 발간됨으로써 맥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런 잡지들은 수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학적 가치는 실로 크다고 하겠다. 1910년도에는 외국문학 번역물이 주로 <소년>지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다음 해에 <소년>지가 폐간되었기 때문에 신문이나 다른 종합잡지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청춘>지가 발간되었고, 1918년에 <태서문예신보>가 발간됨으로써 외국문학 작품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태서문예신보>에 무려 54편의 외국시가 번역되었다는 것은 한국 근대시의 외국시 접촉과 수용면에서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단 번역량의 증가만이 아니라, <태서문예신보>는 창간호부터 “직접 본문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한다”<sup>23)</sup>는 목표를 설정하고 번역에 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당시 지배적이었던 일역의 중역이라는 간접수용에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주체적 시도였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1919년 2월에 동경 유학생인 김동인, 주요한 등이 주축이 되어 일본에서 순수문학지인 <창조>를 발간한 점이다. 정치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꺾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수문학지가 탄생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건으로서 이 잡지를 통해 최초의 독일시가 수용된 것이다.

22) 잡지에 대한 자료는 다음 저서를 참조했음.

김근수,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 태학사, 1988.

23) <태서문예신보> 제1호, 태서문예신보사, 1918, 표지.

독일시 수용 맹아기에는 괴테와 쉴러 두 시인의 이름만 소개되었지만, 1910년대에는 1910년에 하이네의 이름이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1910년 유옥겸이 번역한 『서양사교과서』의 문학편에서 영국에는 바이런, 독일에는 하이네가 유명하다고 되어 있다.<sup>24)</sup> 이로부터 약 10년 뒤 하이네의 시가 <현대> 창간호에 역자 미상으로 3편 번역됨으로써<sup>25)</sup> 한국 근대시의 하이네 시 접촉이 시작된다.

1910년대에 번역된 외국문학 작품은 총 143편인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미문학 작품(39편), 회람문학 작품(20편), 러시아문학 작품(18편), 프랑스문학 작품(18편) 순이다. 그 중에서 독일문학 작품 번역은 소설 3편과 괴테의 시 3편으로 불과 6편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독일문학 작품의 번역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1913년에 W. Y. Paeck이 독일어로 시를 써서 발표할 만큼 독일어와 독일문학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1910년대 독일문학 작품 번역 상황을 살펴보면 소설은 총 3편으로 1913년에 G.A. 뷔르거 G. A. Bürger의 소설 「허풍선이 모험기담」, 같은 해 뮐바하 Luise(?) Mühlbach의 「나폴룬과 푸로시아 왕후」, 1915년에 뮐바하 Luise(?) Mühlbach의 소설 「익국열혈」이 있다. 번역된 시로는 추호 전영택이 1919년 3월 20일 <창조> 2호에 평론 「시인 쾨테」를 발표하면서 괴테의 시 2편 「깊은相逢과 슬픈 離別, Willkommen und Abschied」, 「그림 그린 씬으로, Mit einem gemalten Band」을 소개한 것과, 벌꽃 주요한이 <창조> 3호(1919. 12. 10)에 발표한 「처녀 Spröde」가 있다. 추호가 번역한 괴테의 시 두 편이 바로 이 땅에 최초로 수용된 독일시에 해당한다. 위의 괴테의 시 3편은 모두 그의 초기시로서 질풍노도문학의 대표적인 서정시이며, 자신의 사랑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이다. 전영택은 「시인 쾨테」에서 괴테는 몽롱한 정서를 사랑한 작가

24) 유옥겸, 『서양사교과서』, 광한서림, 1910, p. 230 참조.

25) 「短詩三篇」, <현대> 창간호, 제1권 1호 (1920. 1. 31.), p. 42.

26) 이유태, 김학동, 이재선 공저, 앞의 책, pp. 128-29 참조. 독작시의 제목은 「Der Frühling」이며, 지은이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1편의 독작시이지만 독일어로 시를 창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국 근대시가 독일시를 생산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며, 처음부터 로맨틱 시인이었다고 설명한다.<sup>27)</sup> 이로써 한국에 최초로 수용된 독일시, 즉 괴테의 시 2편은 전신자의 설명에 따르면 낭만주의의 작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독일 낭만주의의 한국수용사를 살펴보면<sup>28)</sup> 더욱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괴테는 한국에 도입된 초반기부터 낭만주의 작가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괴테 시 두 편은 한국에 수용된 최초의 독일 낭만주의시가 되는 것이다. 전영택은 시인 괴테가 어떤 시인이었는지, 어떤 창작과정을 거쳐서 시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쓰고 있다.

“괴테의 抒情詩는 거이 다 自己가 親히 經驗한 戀愛에서 生긴거시나 그가 지난 戀愛의 歷史를 모르면 그 참뜻을 알 수 없고 참맛을 볼 수 없거시다.”<sup>29)</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괴테의 서정시는 대부분 그의 연애택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의 연애사를 모르면 그의 시의 참뜻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문학과 체험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서 한국 근대문학에서 처음으로 체험론을 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체험론은 1932년 3월 신문과 잡지에 실린 괴테의 사후 백년 기념특집의 기사에서도 나타나는 바,<sup>30)</sup> 괴테는 83세의 긴 생애동안 주옥같은 서정시를 무수히 읊었고, 연애를 체험한 시인이며 그의 작품은 바로 그의 고백이고, 자기 자신의 생활의 총결산이 된다는 체험론을 다루고 있다. 이어서 1938년 박용철이 릴케 문학을 수용하면서 <삼천리문학>에 「시적 변용으로」란 글을 발표하면서 릴케의 체험론을 소개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어쨌든 1910년대는 한국 근대시의 독일시 수용의 출발 단계로서 조선의 정

27) 전영택, 「시인 괴테」, <창조> 제2호 (1919. 3. 20), p. 38.

28) 이유영, 「독일문학의 도입」, 「소재로서의 독일낭만주의」, 『한독문학비교연구 I』, 삼영사, 1982, pp. 59-130, pp. 237-336 참조.

정경량, 「독일낭만주의의 문학과 한국 작가」,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I』,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pp. 401-425 참조.

29) 전영택, 「시인 괴테」, <창조> 제2호 (1919. 3. 20), p. 41.

30) 김진섭, 「괴테 사후백년기념특집」, <문예월간> 제4호 (1932. 3).

서항석, 「괴테 백년제기념특집」, <동아일보>, (1932. 3. 22).

조희순, 「괴테 백년제기념특집」, <조선일보>, (1932. 3. 22) 참조.

치적 상황과 맞물려 전반적으로 사회가 위축된 때였으므로 문학 활동도 그다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태서문예신보>를 통해 외국문학 작품이 활발하게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괄목할 만한 문학적 성과이다. 특히 전대에 역사류 위주 번역에서 순수문학 작품 번역으로 바뀌어짐으로써 번역 작품의 선택과 성향이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1910년대가 끝날 무렵인 1919년에 순수문학지 <창조> 발간은 한국 근대시에서 독일시 접촉과 수용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잡지를 통해 이 땅에 독일시가 최초로 수용됨으로써 한국 근대시가 독일시, 즉 독일의 서정시 혹은 독일의 낭만주의시를 최초로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 3. 독일시 수용의 성장기 (3단계: 1920-1929)

1920년대는 1910년대에 비해 외국문학 번역량이 놀라울 정도로 급증한 시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제의 대조선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10년대 일본은 무단정치를 표방하며 조선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두운 침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문학 활동도 대체로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19년 삼일운동이 발발한 결과, 일본은 충격으로 인해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였고, 1920년대에는 문화정치 시대가 개막하게 된 것이다.

이는 1910년대와 20년대의 번역문학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1910년대는 단행본 15편, 신문·잡지 게재분 33편, <태서문예신보> 41편으로 총 89편인데 비해, 20년대는 단행본이 124편, 신문·잡지 게재분을 국가별로 보면 영국문학 151편, 러시아문학 127편, 인도문학 126편, 프랑스문학 100편, 독일문학이 68편, 미국문학이 65편, 이탈리아 및 그 외 국가문학 34편으로 총 671편이다.<sup>31)</sup> 이 통계 자료를 볼 때 20년대의 번역량은 수적으로 대단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문학의 번역은 영국, 러시아, 인도, 프랑스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31)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8. p. 414 참조.

1920년대 독일문학 번역 작품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수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시, 소설, 희곡, 수필, 동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번역이 된 셈이다. 선정된 작가들도 다양하므로 한국 근대시가 독일문학을 골고루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의 경우는 예외로서 총 37편의 시 중에서 하이네의 시가 23편, 괴테의 시가 8편을 차지하므로 거의 두 작가를 중심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하이네는 번역시집까지 출간되었기 때문에 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하이네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20년대는 하이네 시의 번역시대라고 부를 만큼 그의 시가 집중적으로 번역되었다.

갑자기 20년대에 들어와서 하이네의 시가 괴테의 시보다 더 많이 번역된 이유는 일본에서 하이네의 수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하이네의 시가 1889년 최초로 번역되었으며, 190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의 이름이 일반 독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1920년대부터 하이네 번역문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 다량의 번역물이 쏟아져 나왔고 논문과 평론들도 상당수 출간되었다. 소위 하이네 붐이라고 할 만큼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sup>32)</sup> 한국 근대문학은 일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당시 한국의 하이네 수용은 일본의 하이네 수용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하이네의 시는 1920년 <현대> 창간호에 역자 미상으로 세 편이 번역되었는데, 이 세 편은 역사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수용된 하이네의 시에 해당된다. 최초로 번역된 하이네 시 3편을 살펴보면 그의 초기시집인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1827』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서정성이 풍부한 시들이다. 역자는 서두에서 하이네를 독일에서 괴테 다음으로 유명한 시인이며 다정다한의 대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가 하이네의 연애시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는 하이네의 서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서 1910년대에 번역된 괴테의 시

32) Schozo Inoue, Heine in Japan, In: Doitsu Bungaku [H] 14-[Jg. 8]. Tokio 1955, H.3 참조.

문현미, 「한국 근대문학의 하이네 수용에 관한 고찰」-신태약의 「하이네」 「<세계시대문화전>」의 하나를 중심으로-, 『진리논단』 제5호, 천안대학교출판부, 2000. 2. 25. p. 256 참조.



도 역자들이 연애시라고 하였고, 그의 연애택침에서 비롯된 시라고 소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에 수용된 독일시들은 수용초기부터 서정성이 짙은 연애시가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괴테와 하이네는 처음부터 연애시인으로서, 낭만주의시인으로서는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년대에도 하이네의 전신자들이 그를 감상적 낭만주의 작가로, 서정시인으로, 그의 시를 눈물없이 읽을 수 없는 시라고 소개하였다.<sup>33)</sup>

1920년대 하이네의 시는 그의 초기시집에서부터 중기·후기시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번역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서정적인 시편들이다. 무엇보다도 1926년 한국에서 최초로 출간된 하이네 역시집인 『하이네 詩選集』<sup>34)</sup>의 시편은 서정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네의 『노래의 책』에서 발췌한 시가 대부분이다. 1924년 양주동은 <금성> 제2호(1924. 1. 25)에 시에 대해 논하면서 하이네를 서정시인이라고 소개했으며, 서정시를 단순한 감정이나 정서를 노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5)</sup> 이처럼 하이네는 그의 다양한 작품들이 한국에 번역되었고 시인 하이네와 작품의 특징에 대해 논한 평론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여전히 달콤한 연애시인으로, 낭만주의 작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하이네 이입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된 것이다. 즉 하이네는 많은 나라에서 그의 다양한 작품이 번역되어 있지만 『노래의 책』의 시인으로, 연애시인으로 혹은 낭만시인으로 알

33) 안서는 1921년 <개벽> 제15호에서 하이네를 감상적 낭만주의 작가로 소개하고 있고, 신태악도 1921년에 발간한 「하이네」 『<세계십대문호전>의 하나』에서 하이네를 독일 3대 서정시인 중의 하나로 소개하면서 그의 시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안서, 「근대문예」, <개벽> 제15호(제2권 9호), 1921. 9. 1, p. 105 참조, 신태악, 『<세계십대문호전>의 하나』, 이문당, 1921, p. 96 참조.

34) 강성주역, 『하이네 詩選集』, 평화시점, 1926. 4. 8. 필자가 독일 하이네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23년 재일 한국동경유학생회에서 출간한 하이네시선집이 있었다고 한다. 역자는 강봉주이고 서명은 『Haikyo no Honoo no Mure. Ein Meer von Flammen auf der Ruine』이며, 총 8편의 하이네시(서정삼곡편)가 번역되었는데, 원문과 번역본이 나란히 실려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확인할 수가 없다.

Namki Hue, 『Heinrich Heine in Korea』, In: Heine Studien 5, Tokyo 1983, p. 371 참조.

35) 양주동, 「詩란 엇더한 것인가」, <금성> 제2호(1924. 1. 25), p. 54 와 p.108 참조.

려져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20년대는 하이네의 시가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그것도 서정시편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하이네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시가 괴테의 시이다. 괴테는 독일시 수용 맹아기와 수용 출발기부터 세계적 작가로서, 연애 시인으로서, 낭만주의 작가로서 소개되었는데, 20년대에도 작가로서의 괴테는 전년대와 마찬가지로 소개된다. 괴테의 작품 번역은 주로 괴테의 일생일대의 대작인 『파우스트』와 초기작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집중되어 있다. 『파우스트』의 경우 전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번역, 가령, 일부분을 발췌해서 서정시 형태로 번역한 것은 20년대 초반의 괴테 수용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괴테의 시는 하이네에 비해 그렇게 많이 번역된 편은 아니지만, 역시들은 하이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서정성이 농후한 연애시편이다. 이밖에 그의 사상과 작품 성향에 대해 논한 글도 적지 않게 발표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20년대는 하이네의 시와 괴테의 시가 집중적으로 번역되었으며 특히 하이네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시인의 역시편 중에서는 서정시편(연애시편)이 주로 번역되었고, 두 시인 모두 낭만주의 작가로 소개되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다. 따라서 20년대 한국 근대시는 독일시 중에서도 독일 서정시 내지는 연애시와 접촉할 수 있었고, 달리 말하면 독일 낭만주의시와 접촉했다고도 볼 수 있다.

#### 4. 독일시 수용의 발전기 (4단계: 1930-1939)

1930년대 독일시 수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독문학 전공자들의 번역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박용철, 서항석, 김진섭, 서병각, 조희순 등이 일역본으로부터의 이중역이 아니라, 원문으로부터 직접 번역을 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우리 번역문학사에서 볼 때 일역본의 이중역, 삼중역으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진술한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1926년 동경에서 외국문학연구회가 결성되어 1927년 1월에 <해외문학>을 발간하게 된다. 해외문학파들은 이 잡지를 통해 충실한 번역과 이중

·삼중역에서부터 탈피하고자 했다. 이런 움직임은 계속되어 30년대에 독일시 수용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사실 문화간 번역은 번역자에게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단순하게 뜻이 통하도록 하는 내용 재현만이 아니라, 작품의 형식이나 예술적 표현기법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고 문화권이 다른 경우에는 지역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30년대 박용철을 비롯한 독문학 전공자들은 위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원문으로부터 충실한 번역을 시도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에게 원작의 내용만이라도 올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의 번역에서 오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번역본이 일역본으로부터 번역함으로써 오역 투성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1930년대는 20년대와 비교하면 잡지 게재분은 압도적으로 많으나 단행본은 겨우 21편에 불과하다. 잡지에 게재된 것을 살펴보면 영국문학이 367편, 독일문학 127편, 프랑스문학 108편, 미국문학 104편, 러시아문학 101편 순으로 되어 있다. 단행본의 경우는 미국 6편, 영국 3편, 프랑스 2편, 독일 1편 등이다. 20년대까지 독일문학이 다른 외국문학의 번역량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으나 30년대는 잡지 게재분만 보더라도 영국 다음으로 2순위에 해당될 만큼 독일문학의 번역이 활발했다. 특히 독일문학 중 시가 다른 장르보다 훨씬 더 많이 번역되었다는 것은 한국 근대시가 독일시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떤 시인들의 시가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자. 1930년대도 20년대와 마찬가지로 괴테와 하이네 두 시인에 편파적으로 집중, 번역된 현상이 발생했다. 시에 관한 한 영국(1순위)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었는데, 20년대 37편에서 30년대에는 86편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인별로 보면 괴테 22편, 하이네 16편, 뢰리케 4편, 크라이그헤르 3편, 아이헨도르프 3편, 헤세 2편, 리하아르테멜 2편, 울란트 2편 순서로 번역되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년대에 하이네가 1순위이고 괴테가 2순위였는데, 30년대에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단행본의 번역시편을 합쳐서 보면 역시 하이네의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이 번역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최재서의 『해외서정시집』 속에 역재된 독일시 32편 중에서 하이네의 시가 8편, 괴테의 시가 7편이 들어 있고, 『박용철전집』의 독일시편에는 괴테 13편, 하이네 90편, 릴케 7편, 실러 1편 순으로 번

역되었다. 그러니까 독일시가 총 111편이나 번역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이네의 시가 다른 시인들의 역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번역된 독일시편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정시이고, 압도적으로 많이 번역된 하이네 시의 경우는 물론 그의 중기, 후기시집에서 발췌한 역시들도 다소 있지만, 역시 전년대와 다를 바 없이 『노래의 책』에서 발췌한 시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 번역과는 달리, 작가 하이네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평론은 양적으로는 별로 많지 않지만 하이네 문학의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고, 거의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sup>36)</sup> 특히 서정시인 혹은 연애시인으로서의 하이네의 면모보다는 사회비평가 혹은 혁명시인으로서의 면모에 대해 논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시 하이네 시의 번역 성향과 비교해 볼 때, 몇 편의 논문을 통해 하이네 문학을 다각도로 천착했다는 것은 하이네 문학을 제대로 알릴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30년대에 하이네 문학의 본질에 대해 논한 연구 논문이나 평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하이네는 여전히 서정시를 쓰는 연애시인이나 감상성이 짙은 낭만주의 시인으로서 이미지가 심어졌다. 여기에는 당시 한국 문단의 낭만주의 정신의 부활 분위기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서가 『해외서정시집』의 서언에서 “... 때마침 文壇엔 詩文學의 復興이 喧傳되며 浪漫精神의 復活이 主張되고 있다. 이 時代的 待望에 呼應키 위하야 이 譯詩集은 誕生된 것이다. ...”<sup>37)</sup>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그때 문단에서 낭만주의 경도 분위기가 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적 수용의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의 번역량이라든지 번역 빈도수에 의해서 영향력이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시인의 작품이 다른 시인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번역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근대시에서 독일시 접촉과 수용면에서 볼 때, 1930년대는 하이네라는 한 작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이네가 우리 근대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36) 김학동, 「하이네의 이입과 영향」, 『한국근대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81, pp. 138-189 참조.

37) 최재서편, 『해외서정시집』, 인문사, 1938, p. 1.

미쳤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미 몇몇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되었다. 김학동은 한국 근대시의 비교문학적 차원에서 「하이네의 수입과 영향」을, 김효중은 『박용철의 하이네 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필자는 「하이네 문학의 생산적 수용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을 연구한 바 있다.<sup>38)</sup>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한국 작가들 중에서 박용철과 박영희가 하이네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가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룹으로는 백조 동인, 문예사조상으로는 한국 낭만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영향의 흔적 혹은 생산적 수용과 같은 영역의 연구는 앞으로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30년대, 그야말로 하이네의 시대라고 명명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그의 시는 다른 독일시인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이 번역되었고, 비록 편수는 적지만 하이네 문학에 대한 논문과 평론도 그의 본령을 전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이네에 관한 논문 「하이네와 伊太利紀行」을 발표했던 조희순은 하이네에 심취하여 그의 이름 하인리히(Heinrich)를 모방한 ‘河仁里’라는 필명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창작품을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생산적 수용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박용철이나 박영희는 하이네의 시를 번역한 작가이면서 작품 활동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의 흔적들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930년대에 한국 근대시는 독일시 중에서도 하이네의 시를 가장 많이, 그 다음 괴테의 시를 접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문학 전공자들이 원본으로부터 충실한 번역을 시도하고자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이네를 비롯한 다른 독일시들의 본질 전달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의 충실한 전달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의 번역은 특히 형식적인 측면의 등가성은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내용은 그런대로 올바르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이 시기에 직접 번역을 한 작가들이 창작 활동도 했다면 그런 작가들을 중심으로 영향의 구체화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번역을 하

38) 김학동, 앞의 책 참조.

김효중, 앞의 책 참조.

문현미, 「하이네문학의 생산적 수용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어문교육논집』 13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4. 4, pp. 269-294 참조.

지는 않았더라도 독일시가 그만큼 많이 번역되었고, 특히 하이네에 편중되어 번역되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 근대시 형성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한국 근대시도 20년대처럼 하이네와 괴테의 역시편을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두 시인의 서정시 내지는 연애시, 혹은 독일 낭만주의시와 주로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30년대 한국 근대시는 하이네와 괴테의 문학 수용을 중심으로 영향관계의 구체화 과정이 밝혀질 때 그 정체성 또한 제대로 규명된다고 할 것이다.

##### 5. 독일시 수용의 쇠퇴기 (5단계: 1941-1945)

1935년을 기점으로 신문과 잡지, 단행본 모두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는 1935년 일본이 국제연맹으로부터 탈퇴하고 독일과 이탈리아 이외의 국가들과 영미국가들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함으로써 서양 문화를 배격하게 되었기 때문에 식민지하에 있던 조선도 자연히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어쨌든 30년대 후반부터 출판물수가 상당수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현상은 40년대에 훨씬 더 가속화된다. 특히 이 시기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친일언론강요시대의 후반기에 해당하므로 한국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언론탄압이 극도에 달한다. 이것은 발간된 잡지수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30년대에 발간된 잡지가 228종이었던 것이 40년대에 18종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그런데 잡지수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발간된 잡지가 대부분 친일일색이었고, 게다가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되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마저 폐간되었으므로 신문과 잡지에 발표를 의존했던 우리 문학 현실 하에서는 번역을 통한 수용이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것을 국가별로 보면 영미문학 29편, 독일문학 20편, 프랑스문학 15편, 소련문학 5편, 기타 5편 순이다. 이는 20·30년대와 비교해 볼 때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잡지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발표 작품수도 현격하게 줄어 들었다. 그리고 발표 연도를 살펴보면 거의 1940년과 41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이 시기는 외국문학 작품 번역이 전반적으로 극히 저조한 편이지만, 독일문학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많이 번역된 셈이다. 총 20편의 번역

작품 중에서 시는 윤태웅이 릴케 시 9편, 김선부가 원작자 미상의 시 3편을 발표하였다. 20·30년대에 하이네 시 번역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하이네의 시는 한 편도 번역되지 않았고, 그 대신 릴케의 시가 번역되었다. 번역자도 독문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이 전년대와 다른 점이다. 윤태웅은 영문학 전공자로서 릴케의 시를 번역했으나 30년대 독문학 전공자들이 활발하게 번역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번역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1940년대의 독일시는 릴케의 시가 주로 번역되었다. 번역된 릴케 시를 살펴 보면 역시 서정성이 풍부한 시편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릴케의 시 수용을 잠시 살펴보자.<sup>39)</sup> 릴케의 시가 한국에 최초로 번역된 것은 박용철에 의해서이다. 1936년 박용철은 <여성> 1권 3호(1936. 6. 1)에 「소녀의 기도(마리아께 드리는)」를 번역하여 발표하였다.<sup>40)</sup> 1938년 박용철은 <삼천리 문학>에 「시적 변용으로」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최초로 릴케의 시론을 소개한다.<sup>41)</sup> 즉 박용철은 릴케가 『말테의 수기』에서 “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정이 아니고(사실 감정은 일찍부터 가질 수 있는거다), 경험이다.”<sup>42)</sup>라고 말한 체험론을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괴테의 체험론과 릴케의 체험론이 한국에 수용됨으로써 문학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4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릴케의 시가 수용됨으로써 한국 근대시는 릴케의 역시와 많이 접촉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20·30년대 괴테와 하이네의 역시편과 마찬가지로 서정성이 풍부한 시편들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40년대 한국 근대시는 서정성이 풍부한 릴케의 시와 접촉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도 전년대와 같은 차원에서 한국 근대시의 형성문제와 정체성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39) 릴케의 작가명이 이 땅에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16년 백대진이 「二十世紀初歐洲諸大文學家를 追憶함」을 <신문계> (제4권 5호), 1916. 5. 5에서라고 함.

40) 박용철역, 「소녀의 기도(마리아께 드리는)」, <여성> 1권 3호, (1936. 6. 1),

41) 박용철, 「시적 변용으로」, <삼천리문학> (제1권 1호), (1938. 1.1)

42) 문현미 역, 『말테의 수기』, 민음사, 2001, p. 32.

### Ⅲ. 결 론

지금까지 번역을 통한 수용사적 관점에서 한국 근대시가 독일, 독일문학, 독일시인, 독일시와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근대문학은 일제강점기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외국문학을 수용하고 접촉하는 가운데 성장, 발전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조선정책노선에 따라 문학활동도 변화를 겪게 되었고, 문학의 전달 매체인 신문과 잡지도 제약을 받게 되는 역학관계에 놓여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문과 잡지는 그 시대의 문화적 기류를 대변하고 사회적 맥락을 예민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신문과 잡지의 역사를 보면 예술과 문화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신문과 잡지는 오늘날의 신문과 잡지의 역할과는 달리, 민족 정신의 횃불이라고 할 만큼 한국인의 정신적 기수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문학적으로도 자국문학의 활동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문학을 수용하는 매체로서 자국문학과 외국문학의 가교 역할을 했다. 여기에 일본이라는 중간매개체가 있어서, 한국 근대문학은 일본을 통해 외국문학을 수용한 이중, 삼중의 간접수용을 함으로써 형성된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된다.

본고에서는 시기를 5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1단계는 1898년에서 1909년까지이며, 한국 근대시가 독일시와 접촉할 수 있는 씨앗이 싹튼 독일시 수용 맹아기이다. 한국이 독일과 국가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학교가 설립됨으로써 그 나라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단계이다. 독일은 접촉 초기부터 좋은 이미지를 지닌 국가로서 한국에 인식되었고, 그로 인해 독일문학이나, 독일시인, 독일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독일문학은 주로 역사서나 역사교과서에서 외국문학을 소개하는 가운데 독일시인들의 이름이나 문학적 특징에 대해 언급하는 정도로 수용되어졌고, 수준이 높은 문학으로서 평가되었다. 작가 소개는 피터와 윌러에 집중되었고, 두 시인은 독일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최고의 작가로서 이입되었다. 따라서 1단계에서 한국 근대시는 독일시인 중, 세계



적 작가이자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로서의 괴테와 셸러를 접촉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단계는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19년 <창조>발간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일본의 무단정치시대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탄압이 시작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 문학적으로도 큰 성과가 없던 시기였다. 하지만 1918년 <태서문예신보> 발간으로 인해 1900년대에 역사류와 전기류 위주의 번역에서 순수문학 작품 번역으로 번역 성향이 바뀌어짐으로써 외국문학의 수용이 활기를 띠게 되었던 점이 괄목할 만하다. 독일문학 작품 번역은 전체 번역량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편이었지만 1919년 <창조>에 한국 최초로 괴테의 시가 두 편 번역, 소개됨으로써 한국 근대시가 독일시와 처음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괴테의 시 두 편은 순수한 서정시이자 괴테의 연애택함을 표현한 연애시였다. 괴테는 이입초기부터 낭만주의 작가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시는 한국에 수용된 최초의 독일 낭만주의 시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 근대시는 수용 출발기부터 독일시, 그 중에서도 연애시이자 독일 낭만주의시와 접촉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 시기는 독일시 수용의 성장기로서 삼일운동 발발 직후인 1920년부터 1929년까지이다.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한 시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잡지가 출간되었고, 단행본수도 증가하였으며 외국문학의 번역량도 급증했다. 독일문학 번역은 다른 국가들의 번역량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지만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번역이 되었고, 작가들도 골고루 선정되었다. 다만 시 장르의 경우는 하이네와 괴테, 이 두 시인의 작품 번역에 집중되었으며, 하이네의 시가 괴테의 시에 비해 더 많이 번역되었고, 하이네는 시선집이 출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1920년 <현대> 창간호에 하이네의 시 3편이 번역되었으니, 이것이 한국에 최초로 수용된 하이네의 시이다. 하이네의 역시는 괴테의 역시와 마찬가지로 그의 연애시, 특히 서정성이 풍부한 시가 번역되었으며, 하이네도 괴테와 마찬가지로 낭만주의 시인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시도 낭만주의시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 근대시는 서정성이 풍부한 독일시 내지는 연애시 혹은 독일 낭만주의시와 접촉했던 것이다.

넷째, 이 단계는 한국 근대시의 독일시 수용의 발전기로서 1930년부터 1939

년까지에 해당된다. 1930년대는 독문학 전공자들이 활발하게 번역을 했던 시기로서 당시 한국 번역문학의 병폐였던 일역본의 이중역, 삼중역에서부터 탈피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해외문학>이 발간됨으로써 직접 원문에서부터 충실한 번역을 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1930년대 번역량은 20년대와 비교하면 잡지 게재분은 압도적으로 많으나 단행본은 별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시기도 독일시의 경우는 괴테와 하이네 두 작가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역시 하이네의 시가 괴테의 시보다 훨씬 더 많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모두 하이네의 시가 1순위, 괴테의 시가 2순위로 번역되었으며, 작품 역시 연애시이거나 서정성이 짙은 시들이 선정되었다. 30년대에 하이네의 시는 다양한 시기의 작품들이 번역되었지만, 양적으로 볼 때 『노래의 책』에서 발췌한 시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 번역뿐만이 아니라, 그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논문이나 평론들도 적지 않게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네는 전세계적으로 달콤한 연애시인으로, 낭만주의 작가로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20·30년대 한국 근대시는 독일시 중에서도 하이네와 괴테의 시를, 그것도 두 시인의 연애시이거나 서정시 혹은 독일 낭만주의시와 접촉했다고 하겠다.

다섯째, 한국 근대시에서 독일시 수용과 접촉 마지막 단계로서 1941년부터 1945년까지가 해당된다. 이 시기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국민총동원 체제에 들어감으로써 한국어 전면 사용 금지가 실시되었고, 양대 순수 문예지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되고, 민족지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는 등 소위 암흑기에 접어든 시기였다. 따라서 출판물수가 급감하고 출판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친일일색이거나 종교잡지 정도였기 때문에 번역 작품수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년대에 비해 독일문학은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많이 번역되었다. 이 시기에는 하이네와 괴테의 번역 시대는 사라지고 그 대신 릴케의 작품이 주로 번역되었다. 번역된 릴케의 시역시 서정성이 풍부한 시가 선정되었고, 사랑을 테마로 한 시편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전년대에 비해 작가들만 달라졌을 뿐, 번역 시의 특징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한국의 근대시는 반드시 번역량이나 번역 빈도수만큼 접촉하

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시 중에서는 하이네, 괴테, 릴케의 시 순으로, 독일시인도 위의 순서대로 접촉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와 같은 수용 경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용된 시를 고찰하면, 주로 연애체험을 표현한 연애시나 서정성이 풍부한 서정시가 대부분이었고, 위의 시인들이 낭만주의 작가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독일 낭만주의시와도 접촉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 근대시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이런 수용 과정과 접촉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은 전통문학의 계승, 발전이라는 관점과 일본이라는 가교를 통해서 이 땅에 수용된 외국문학과의 접촉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하에 있었고, 문단의 주역들도 일본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을 통해서 외국문학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근대시가 독일시인이나 독일시와 어떻게 접촉했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문제는 일본의 독일시인, 독일시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런 맥락 속에서 정체성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 근대시가 한국에 번역된 독일시인, 독일시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수용했는가 또는 한국에 번역된 독일시인, 독일시가 한국 근대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의 연구는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수용, 접촉, 독일시, 한국 근대시

## 참고문헌

### 1. 자료

- 김근수.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 태학사, 1988.  
 김병철.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 연구 (상)』. 을유문화사, 1980.  
 \_\_\_\_\_.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 연구 (하)』. 을유문화사, 1982.  
 \_\_\_\_\_.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8.

- 이충섭 역음. 『한국의 독어독문학 연구 문헌 서지 (단기 4278-4319; 1945-1986)』. 탐출판사, 1987.
- \_\_\_\_\_. 『한국의 독어독문학 관계 번역문헌정보, 1906-1990』. 한국문화사, 1990.

## 2. 국내논저

- 강성주역. 『하이네 시선집』. 평화서점, 1926. 4. 8.
- 김병옥. 「한국문학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번역의 위치」. 『번역연구』 제1집. 한독문학번역연구소, 1993.
- 김용직.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82.
- 김운식. 『우리문학의 안과 바깥』. 성문각, 1986.
- 김진섭. 「괴-테 사후백년기념특집」. <문예월간> 제4호, 1932. 3.
- 김학동. 『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72.
- \_\_\_\_\_. 『한국근대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81.
- \_\_\_\_\_. 『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82.
- \_\_\_\_\_. 『비교문학론』. 새문사, 1984.
- 김효중. 『박용철의 하이네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과, 1986. 12.
- 문현미. 「하이네문학의 생산적 수용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어문교육논집』 13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4. 4.
- 문현미. 「한국 근대문학의 하이네 수용에 관한 고찰」-신태악의 「하이네」 『<세계십대문호전>의 하나』를 중심으로-, 『진리논단』 제5호, 천안대학교출판부, 2000. 2. 25.
- 문현미역. 『말테의 수기』. 민음사, 2001.
- 박용철. 「시적 변용으로」 <삼천리문학> 총1호(제1권 1호), 1938. 1. 1.
- 서항석. 「괴-테 백년제기념특집」. <동아일보>, 1932. 3. 22.
- 신태악. 『<세계십대문호전>의 하나』. 이문당, 1921.
- 안서. 「근대문예」. <개벽> 총15호 (제2권 9호), 1921. 9. 1.
- 양주동. 「詩란 엇더한 것인가」. <금성> 제2호, 1924. 1. 25.

- 역자미상. 『短詩三篇』. <현대> 창간호 (제1권 1호), 1920. 1. 31.
-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98.
- 유옥겸. 『서양사교과서』. 광한서림, 1910.
-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1995.
- 이유영. 김학동. 이재선. 『한독문학비교연구 (1)』. 삼영사, 1976.
- \_\_\_\_\_. 『한독문학비교연구 (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0.
- 이유영. 『한독문학비교연구 (3)』.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2.
-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2.
- 전영택. 『시인 뵈테』. <창조> 제2호, 1919. 3. 20.
-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 조희순. 『괴-테 백년제기념특집』. <조선일보>, 1932. 3. 22.
- 주승택. 『한국근대문학의 성격 재고 -단절된 문학사의 극복을 위하여-』. <시와 시학> 창간 특대호. 시와 시학사, 1991 봄.
- 차봉희 엮음.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1)』.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2.
- \_\_\_\_\_.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2)』.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2.
- 차봉희. 『한국의 독문학 수용사적 개관에서 드러나는 수용 양상과 그 전망』. <외국문학> 제48호. 열음사, 1996 가을.
- 최재서편. 『해외서정시집』. 인문사, 1938.
- 황현산. 『번역에 깔린 패배주의』. <출판저널> 통권 제193호, 1996.

### 3. 국외논저

- Moon, Hyun Mi. 『Die Rezeption Heinrich Heines in Korea von 1910 bis 1945』. Institut für Koreanische Kultur Bonn, 1993.
- Hue, Namki. 『Heinrich Heine in Korea』. In: Heine Studien 5, Tokyo, 1983.
- Inoue, Schozo. Heine in Japan. In: Doitsu Bungaku [H.] 14=[Jg. 8]. Tokio, 1955. H. I.

<Resümee>

## Die Rezeption und der kontakt des deutschen Gedichts in der modernen Koreanischen Lyrik

Moon, Hyun-Mi

Die moderne koreanische Literatur ging von der intensiven Rezeption der westlichen Literatur in ihrer ganzen Epochenvielfalt aus. Die moderne koreanische Lyrik entwickelte sich unter der japanischen Fremdherrschaft durch den Kontakt mit der deutschen Literatur, dem deutschen Dichter und dem deutschen Gedicht. In diesem Punkt spielte Japan unabhängig von unseren Willen die Rolle wie die Brücke, weil Korea damals unter der japanischen Fremdherrschaft war und die vielen koreanischen Literaten in Japan studierten.

Die Rezeption des deutschen Gedichts in Korea von 1898 bis zum 15. August 1945 ist als ein Beitrag zu der Entwicklung der modernen koreanischen Lyrik einzustufen. Sie ist ohne die Vielzahl von Zeitschriften und Zeitungen nicht zu denken. Die publizistischen Medien waren in jeder Hinsicht von grosser Bedeutung; unter politischem Aspekt stellten sie die Wortführer der koreanischen Nation, literaturhistorisch waren sie die Verkörperung der modernen Literatur Koreas schlechthin, in bezug auf die Rezeption westlicher Literatur waren sie eine wichtige Vermittlungsinstanz. Die meisten Literaturzeitschriften jener Zeit entstanden als Organe der Literaturzirkel, die verschiedene Erscheinungsformen der Literatur Koreas nach aussen kenntlich macht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sind die Rezeption und der Kontakt des

deutschen Gedichts in der modernen koreanischen Lyrik in fünf Phasen zu betrachten:

1. Die erste Phase (1898-1909)

Die moderne koreanische Lyrik machte zuerst den Kontakt mit Goethe und Schiller. Sie wurden sowohl die weltberühmten Dichter als auch die repräsentativen Dichter der deutschen Literatur vorgestellt.

2. Die zweite Phase (1910-1919)

Man bezeichnet die zweite Phase als das dunkle Zeitalter der Redefreiheit oder das Zeitalter, unter dem eine freie Meinungsäußerung überhaupt nicht möglich war.

In der Zeitschrift <Chang-jo> erschienen zum ersten Mal zwei Gedichte Goethes am 20. März 1919. Sie wurden als die Liebeslyrik Goethes vorgestellt. Weil Goethe auch als Romantiker vorgestellt wurde, wurden diese Gedichte als die Gedichte der deutschen Romantik bezeichnet. In dieser Phase machte die moderne koreanische Lyrik den ersten Kontakt mit dem deutschen Gedicht. Da Goethe von Anfang an als romantischer Dichter vorgestellt wurde, wurden seine Gedichte als die Liebeslyrik oder das Gedicht der deutschen Romantik rezipiert.

3. Die dritte Phase (1920-1929)

Es begann eine nach aussen hin mildere Phase, die Phase der "Kulturpolitik". Die Koreaner konnten im Vergleich zur zweiten Phase Zeitschriften und Tageszeitungen 'frei' publizieren. Während es in der ersten und zweiten Phase wenige Literaturzeitschriften gab, nahm deren Anzahl in der dritten Phase stark zu. In dieser Phase wurden die Gedichte Heines am häufigsten übersetzt. Die Gedichte Goethes wurden am zweiten häufigsten übersetzt.

4. Die vierte Phase (1930-1939)

In den dreissiger Jahren ist es auffallend, dass die koreanischen Germanisten das deutsche literarische Werk aktiv übersetzten. In den zwanziger und dreissiger Jahren wurden die Gedichte Heines unter den westlichen Lyrikern am häufigsten übersetzt. Dabei dominieren sowohl als Einzelübersetzungen wie in Anthologien entsprechend der bereits erfolgten Festlegung Heines frühe Gedichte aus dem "Buch der Lieder".

5. Die fünfte Phase (1940-1945)

In dieser Phase wollte das japanische Generalgouvernement die koreanische Kultur und Tradition vollständig ausrotten. So waren auch die Zeitschriften und die Zeitungen in dieser Zeit stark japanfreundlich orientiert. Die Anzahl der Zeitschriften und Zeitungen sank erheblich. Die Gedichte Rilkes wurden hauptsächlich übersetzt. Die übersetzten Werke waren die Gedichte, die viele Emotionen enthalten.

Im Zeitraum von 1898 bis zum 15. August 1945 erschienen zahlreiche Werke von Heine, Goethe und Rilke in koreanischen Übersetzungen. Insbesondere wurden Goethe und Heine zuerst sowohl einer der grossen Dichter der Weltliteratur als auch romantischer Dichter bzw. Dichter der Liebeslyrik rezipiert. Das gilt, wenn auch mit Einschränkung, bis zur heutigen Zeit. Die Erforschung der Rezeption des deutschen Gedichts in der modernen koreanischen Lyrik betrifft also nicht nur Aspekt der westlichen Literatur in Korea im engeren Sinn, sondern sie ermöglicht zugleich einen neuen Blick auf die moderne literarische Entwicklung der koreanischen Lyrik im grossen

Schlüsselwörter: Die Rezeption, Die Rezeption und der Kontakt des deutschen Gedichts in der modernen Koreanischen Lyrik